

“디지털 대장경 이용 쉬워진다”

장경연구, 21일 '고려대장경 2002' 설명

디지털 대장경의 이용이 한걸음 더 쉬워진다. 지금까지 별도의 프로그램 안에서만 열람과 검색이 가능하던 단계에서 나아가 개인용 컴퓨터 상용 프로그램에서도 운용이 가능해진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는 21일 중화문화연구원 주최로 대만에서 열린 제4회 중화국제불학회에서 세계 첫 한문 디지털 대장경인 고려대장경의 2002년판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제3분과(전자 대장경)에서 '고려대장경 2002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 허인섭 고려대장경연구소 학술팀장은 한 마디로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범용화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장경 2000'과 '2001'은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 안에서만 작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고려대장경 2002'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 운영체

계에서 제공하는 상용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MS Word)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열람은 물론 검색까지 MS Word에서 가능해졌으며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간 셈이다.

학자나 전문가 등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동안 문제점이 제기돼 왔던 표점을 집어넣었다. 표점은 문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약속해 놓은 '부호' 또는 '점'이다. 한문을 읽을 때 해석이 편리하도록 단락을 나누고 마침표, 쉼표, 느낌표, 따옴표 등의 문장 부호를 집어넣는 작업이다. 문장 속의 정보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의 정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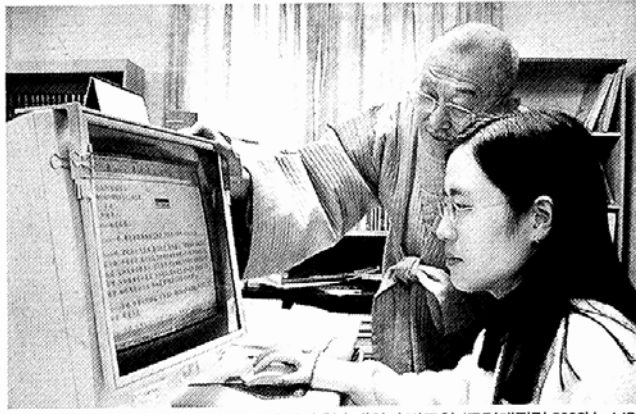
이자 원전을 한글로 옮길 때 기준을 세우고, 번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고려대장경 2002는 마침표(。) 쉼표(,) 모점(·) 세미콜론(;) 느낌표(!) 콜론(:) 따옴표(") 1차 인용문) 2차 인용문) 등 8가지 표점 부호를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단락을 나눠 보여주고, 단락 나누기

MS Word서 열람가능 표점·단락 나눠 '읽기 쉽게' 신수대장경과 통합 검색도

와 표점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기능 등 7가지 기능이 새로 추가돼 이용자가 읽기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나 보탬 기능은 중화문화연구원소에서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수대장경>과의 통합 검색 기능이 다. <신수대장경>과 <고려대장경>을



고려대장경연구소가 21일 대만에서 열린 학술대회서 발표한 '고려대장경 2002'는 MS Word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범용화에 가장 주안점을 뒀다.

동시에 검색해 같은 문장에서 서로 다르게 쓰인 한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허 부장은 "우선 한문 대장경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문, 법어, 영어, 팔리어 등 다언어 경전을 동시에 열람·검색할 수 있는 통합 대장경 구축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체자는 500여 가지지만 1000여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상용화'에 치중하다보니 불완전한 코드 체계로 이체자 검색에

약간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글자나 폰트 이름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이체자 검색이 가능하나, 정자(正字)에 딸린 이체자까지 한꺼번에 검색하는 것은 MS Word상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5월 부처님오신날(19일)을 전후로 '고려대장경 2002'를 정식으로 출시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3월부터 홈페이지(www.sutra.re.kr)에 그동안의 표점 작업 결과물 공개할 예정이다.

학술담당=권형진 기자 jinny@buddhapa.com

동국대 사이버박물관 '오픈'

소장 국보·보물급 26점 3차원 디지털 영상작업

동국대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소장 유물을 3차원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주는 '3차원 사이버 박물관'의 문을 열었다.

동국대는 불교 문화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요 불교 문화재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에 원형대로 재현해 내는 사이버 박물관을 만들기로 하고, 1차로 동국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애대왕 석탑 사리호, 납석 삼존불비사, 금동아미타삼존좌상, 목조 관음보살입상, 목조감아미타삼존불상 등 26점의 국보·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3차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마쳤다.

17일 시연회를 가진 3차원 디지털 아카이브는 3차원 컬러 레이저 스캐너로 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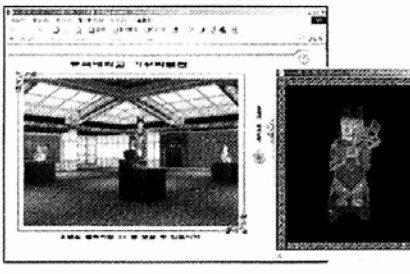
영상 및 색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3차원 디지털 영상작업 후, 얻어진 수백만 개의 3차원 점군(40미크론, 1미크론=1mm의 1/1000) 데이터를 삼각형으로 연결해서 흘러간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완성됐다. 기존 사이버 박물관은 2차원 영상 방식이 대부분이고, 3차원으로 보여주려

도 유물 형상과 색상을 따로 촬영한 후 형상에 색상을 입히는 매핑 방식이었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와 (주)엘엔비테크(대표이사 한창석)가 공동으로 개발한 3차원 디지털 아카이브는 게임·애니메이션·영화 등 각종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해당 문화재가 도난 또는 훼손될 경우 원형 복원, 복제품 제작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 스님은 "장기적으로 동국대 박물관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불교 문화재를 차례로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불교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관리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홈페이지(www.dongguk.edu)에 접속하면 3차원 사이버 박물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부도 탐신은 팔각 사리기 본떠”

소재구 씨 주장... '팔각당 건물설' 뒤집어

신라 하대 선종의 전래와 함께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부도의 탐신은 팔각의 사리기 모양을 본 뜬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부도의 원형은 팔각당 형태의 건물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학계의 통설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펴내는 반년간 학술지 <미술자료> 67호에 발표된 논문 '신라 하대 승탑 조영사 연구'에서 소재구(국립중앙박물관·사건) 학예연구관은 "승탑의 팔각당형 탐신의 직조적인 모델은 팔각당형 건물이라 아니라 팔각당형 사리기"라고 주장했다.

소 연구관은 '844년 조성된 영거 화상탑(국보 104호)을 비롯한 일련의

승탑 탐신의 밑단에는 받침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학계의 통설처럼)팔각당형 건물이 승탑 탐신의 직조적인 모델이 되었다면 이처럼 공예적인 받침대가 부착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만약 그렇다면 팔각당형 건물의 기반 자체가 승탑의 기반이 되어야 하거나, 불상대좌형 기반이 부착된 팔각당형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연구관은 "팔각당형 건물이 사리의 모델이 되



학술·문화재 단산

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립박물관은 회화, 조소 및 공예 전공자여 지원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교부는 2월 1~22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metro.seoul.kr) 참조.

박물관 특설강좌 수강생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박물관회는 제26기 박물관 특설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박물관 대학'으로 불리는

어 사리기의 조형이 공예적으로 진전되고, 승탑의 탐신은 전적으로 사리기의 공예적 조형을 본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소 연구관에 따르면, 부도는 처음에는 석탑의 기반 위에 간단한 사리기형 탐신을 올렸다가 나중에 석탑의 기반이 불상의 대좌로 대체되고 단순한 팔각 사리기형 탐신도 화려한 팔각당(八角堂)형으로 발전하게 된다.

소 연구관은 "같은 유형의 팔각당이라 해도 선거에서는 실제의 팔각당 건물보다는 팔각당형 사리기를 승탑의 탐신 모델로 채택하는 것이 더욱 불적(佛格)과 동등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점은 승탑의 기반을 불상 대좌와 동일하게 조성함으로써 선종의 지위를 불적으로 격상시킨 점과 동일한 상징적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강자는 고고학, 역사학, 미술학,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전통문화와 각 분야에 걸친 60여개 강좌와 전신실 교육, 국내외 고적답사로 구성된다.

10개월에 걸쳐 총 150여 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좌의 80%이상을 수강하고 수업상태가 양호한 수강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선착순 모집이며 원서 접수 및 등록은 31일부터 2월 6일까지다. (02) 398-5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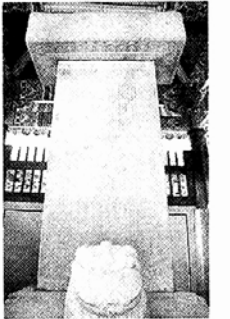
高僧 다시보기

보우 스님과 조계선종

태고 보우(太古普愚, 1301-1382) 스님은 우리나라 불교계의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중흥조로 숭앙되고 있는 고승이다. 스님은 원나라 간섭기 후반인 1301년에 문하시중 판리병부사 홍연과 삼한국대부인 정희 사이에서 태어나 13세에 출가하였다.

스님은 가지산문의 법을 계승하여 득도하고 1346년(충목왕 2)부터 2년 간 원나라에 머물며 입제 고승 석옥청공(石玉淸公) 스님에게 법을 인가받았다. 귀국 후 왕사로 책봉된 스님은 '원융부'라는 승정 기구를 두어 난립된 구산문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또한 백장청구로서 불교계를 쇄신하고자 하였고 한양천도를 주장하는 등 정치의 혁신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화엄종승인 신돈의 등장과 반대세력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속리산에 금교되었다. 말년에 국사로 책봉되었다가 1382년에 입적하였다.

스님은 보각종촌 일연스님과 그의 상



태고사 원종국사탑비 일연스님과 그의 상 (보물 611호)

고려불교계 간화선 본격 유포

몽산선종 수용 '無'자 화두 참구

수제자인 보각종촌 홍구스님의 가지산문의 법을 계승하였다. 일연스님은 가지산문인면서도 조동종 선종 등 다양한 선종을 수용하면서도 멀리 지눌 스님에 의해 수용된 간화선을, 홍구 스님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였던 몽산덕이(蒙山德異) 스님의 선종을 수용하였다. 보우 스님은 지눌 스님이 수용한 임제종의 간화선을 우리 나라 불교계에 본격적으로 유포하고 몽산선종을 받아들여 '無(無)자 화두를 참구하여 깨달은 후 선사를 찾아 도를 인가하는 절차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 임제종의 정맥을 이루고 있는 석옥 스님의 스승인 금암종승(金庵宗僊) 스님의 도반이었던 고봉 원묘(高峰原妙, 1238-1295) 스님의 선종도 수용하였다. 보우 스님이 1333년 감로사에서 분심을 내어 '정질이 나약하고 게을러 불발 대사를 성취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고행하다가 죽는다면 못하다'고 한 것도 그의 영향이다.

이렇듯 스님은 석옥청공스님의 사법제자라기 보다는 지눌 스님과 일연 스님 등 국내의 선종과 석옥 스님, 몽산 스님, 고봉 스님 등 중국의 선종까지도 종합하여 고려의 독특한 선종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스님의 이러한 선종은 여말이후 조선초까지는 크게 발현되지 못하였지만 조선중기 서산대사 형허 휴정스님과 그의 문도들에게 재발견되어 지금까지 우리 나라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이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역이 지성, 만물을 깨닫는 투시력, 특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길잡이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신선함이 있다.

전국 서점 판매중!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송원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허서 명리진명
신국판 / 책서 조영수 편저 / 장가 30,000원
2. 21C 최신 우리말 대운 민생력
4x에디션 / 책서 조영수 편저 / 장가 15,000원(대)
신국판 / 책서 조영수 편저 / 장가 10,000원(소)
3. 재배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장가 12,000원(대)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장가 9,000원(소)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 / 양정복 김민서 저 / 장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장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 / 이선민최효원 공저 / 장가 20,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 / 양정복 송원스님 저 / 장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실심부
신국판 / 양정복 / 장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 김백만 저 / 장가 12,000원

대시 풀어보는 구성학의 사주팔자

문길여 선생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국내 최초의 역학 지침서
구성학이란 우주의 돌고이는 을 이용하여 우리의부족한 을 보충시키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볼 수 있다.
구성학을 위한 운명을 알고 운명을 위한 풍운을 길문으로 바꾸어 오자라는 기를 보충시킬 수 있다.

문길여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당신이 당신이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신험을** 치르고 **운명**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 김백만 저 / 장가 15,000원
11. 신보정비결
신국판 / 백관 저 / 장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 양정복 이상욱 저 / 장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윗계간
신국판 / 양정복 전상희 저 / 장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장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정복 김백만 저 / 장가 30,000원
16. 신비의 고행 고풍들이설들이대륙과
신국판 / 정현우 저 / 장가 17,000원
17. 명가총서의 개성비결
신국판 / 김홍서 저 / 장가 15,000원
18. 구성학의 사주팔자
신국판 / 양정복 / 김백만 저 / 장가 25,000원

격월간 참여불교 신년호 발간!

이번 참여불교 신년호는 '깨달음의 길은 생활 속에 있다'를 특집으로 실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별것도 아니다 싶은 얘기지만 불교를 지식 혹은 신비적 도통주의로 접근하지 않고 생활 혹은 삶으로서 진실되게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2002년 1,2월호 (통권 5호)

특별기고	금강경의 범문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불교와 직업노동 그리고 시민정치
만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청화스님
새기획연재	절집 건축과 생태주의 동서문화의 시작과 분기, 그리고 동서미술
신년특집	깨달음의 길은 생활속에 있다 일상속에서 수행하며 사는 삶 / 오원명 바른 여덟가지 길을 향해 / 거해스님 티베트인들의 지혜와 명사 / 초월스님 '세계에서 사람으로' / 이현주목사 성공과 일치를 위한 애니메이션 / 황지연신부
불교의 눈으로 영화읽기	'조폭영화 <달마야 놀자>와 불교대중문화

www.pjrd1.org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ist1.org

110-340 서울지 동대문구 역삼동 30여 안로 200호
전화 02-745-7799 팩스 02-745-3428 budst1@naver.com